10년 새 지방대학 신입생 급감…수도권 쏠림 심화

전남 1690명·광주 606명 줄어
전국 8.2% 감소, 서울·인천은 늘어
"지자체-대학 협력 위기 극복해야"

전남지역 대학 입학생 수가 최근 10년 새 1690명 가량 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발간한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시·도별 대학입자수를 비교한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학생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10년 새 17.9%나 줄었으며, 다음으로 경남(-16.6%), 전남(-16.4%), 경북(-15.6%), 충남(-15.4%), 전북(-14.7%) 순이었다. 광주는 비교적 낮은 -3.9%였으나 입학생 감소 추세의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같은 기간 광주 입학생은 606명, 전남은 1690명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교 졸업자가 63만3539명에서 50만373명으로 3000명 이상 감소한 탓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늘었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에 따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닫는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국내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4000명에서 2040년이면 28만명 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돼 이같은 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현상 가운데 특히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2단계로 이뤄진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 1차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구직 단계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으며, 지방 청년 유출은 지방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 협력해 지방 소멸 위기의 악순환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므로 지방 대학의 육성은 지역기업과 연계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지방 대학 지원이 고등교육 지원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산업 및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내 전담 조직 구성이 어려우면 전남 등 일부 자치단체처럼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공론의 장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민 대상 자전거 무료교육 11일 오후 자전거 사랑 광주본부는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자전거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서구 서창천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코로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하루안에 검사·처방 받는다

대면진료 병원체계 단순화…안착기엔 응급의료체계도 원상 복귀

앞으로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는 코로나19 대면진료 체계는 단순화되고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던 응급의료체계도 '안착기' 전환과 함께 기존의 응급의료 전담으로 돌아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4월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 그 이후를 '안착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보다 손쉽게 코로나19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치료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해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를 받은 당일 결과를 받는 것은 물론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점전담병원으로 곧장 연계해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있는 '대면진료 가능 동네 병·의원' 체계도 단순화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사태에 동원됐던 응급의료체계도 일상으로 복귀한다.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은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에 탄력적으로 투입돼 왔으나 안착기 전환과 함께 기존처럼 응급의료만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가을·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병상, 의료인력 등에 대한 선제적 확보에도 나선다.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면서 재유행이 발생하면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광주 1678명, 전남 1875명 등 전국에서 4만3925명이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임사

산업기밀·해킹방지 등 경제안보 성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1일 퇴임했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퇴임에 앞서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게 이임사를 보내 "여러분의 열정, 능력,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중단없는 개혁만이 국정원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국정원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다음은 박 국정원장의 이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정원을 떠납니다. '會者定離', 만나면 떠나고 헤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이별을 겪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서운함이 정말 큽니다.

저는 국회, 청와대,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 우리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의 質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애국심과 헌신이 전부였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열정, 능력, 헌신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 잘하는, 미래로 가는, 집처럼 따뜻한', '일·미·집 국정원'을 만들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7월 29일 이후 650여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고 세계 일류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국내정보 수집 근절과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 완전한 정치 중립을 이뤄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국정원은 30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과 어려운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세우고 보복을 단절시켰습니다. 이제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도 땅에 있는 새도 안 날아갑니다. 이렇게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되었고, 지금도 개혁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국정원은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제범죄·사이버위협 대응, 대테러·방첩,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본연의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단없는 개혁만이 국정원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新안보,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나침반 삼아 미래로 가 주십시오.

'침묵하는 문화', '부서 이기주의'는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입을 다무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직급·성별·부서·세대, 장애인·비장애인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해서 국정원을 더욱 유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잘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국정원의 '대변인',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원장이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직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국정원 파이팅!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임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남프로젝트였던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당일처리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동환(510904-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동구 밤실로20번길 3-1 (지산동)

피상속인 망 김동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351호로 신청하여 2022년 5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5월 12일

•상속인:1. 김명희(810626-XXXXXXX)
2. 김강희(830406-XXXXXXX)
상속인 1,2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6길 24 (서초동)
3. 김재완(860920-XXXXXXX)
광주 동구 동계로 10번길 12 (동명동)
4. 김미경(881214-XXXXXXX)
광주 동구 중앙로 261 (계림동)
• 신고기간 : 2022. 5. 12. ~ 2022. 7. 2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3. 김재완의 주소

식품공장매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현 가동중
HACCP 인증 (~2025년 1월)
멸균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등 레토르트 제조 설비 완비
공장 대지면적 620㎡/ 총 면적 = 478평/ 건축면적 198㎡
경량철골구조(2018년 완공)/ 주택 포함 (신축, 넓음)
생산 제품 (네이버 평점 4.7) 및 HACCP 운영 도움 가능
매매가 6억 (모든 설비 포함)
매물 사진 및 추가문의 010-3614-3007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 5. 11. 주주서면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 중 금 99,500,000원을 감소하여 금 5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금액을 10,000원의 주식 9,95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5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2년 5월 12일

주식회사 파리씨아이디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63-32 (신창동)
사내이사 서 용 옥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